

# 서부발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시대 열다

##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국산 1호 가스터빈' 설치



1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 왼쪽 세 번째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문승욱 산업부 장관,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2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기념식에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3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한국형 가스터빈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용 가스터빈의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 서부발전은 지난 4월 5일 경기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하영 김포시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산업부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장비 분야의 꽃'으로 불리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2020년 12월 가스터빈을 설치할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김포열병합발전소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독자 기술로 제작한 270MW급 가스터빈이 설치된다. 가스터빈에는 1천500℃ 이상 고온에서 견디는 초내열 합금 소재가 들어가고, 부품 수는 4만여 개에 이른다. 김포열병합발전소 설비용량은 225MW급 증기터빈을 더해 총 495MW로,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은 인근 약 50만 가구와 8만 가구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설치된 가스터빈은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력계통에 연결해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 과정을 밟는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설계·제작·운영·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서부발전은 김포열병합발전소가 분산 전원으로서 가스복합발전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향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소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덕 사장은 "김포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국산 표준가스 복합 성능 향상과 운영기술 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가스복합발전소 구축이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가족의 약속을 담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_\_ 서부발전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리더

**WPP 한국서부발전**

